

정태춘은

〈시인의 마을〉, 〈촛불〉, 〈떠나가는 배〉, 〈북한강에서〉 등을 만들고 부른 포크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또, 한국에서 가요 검열제 철폐를 이끌어낸 저항 가수이자 문화 운동가입니다.

아내 박은옥과 함께 자유로운 독립 제작 방식을 개척하며 12개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고, 순회 콘서트, 노동·민주화 운동과 대추리 평화 투쟁 현장 등에서 진보 대중과 깊이 연대했습니다. 열정적인 활동 속에 절필과 침묵의 시기도 거치며 사진, 붓글 등 비음악적 매체로까지 창작 영역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새 앨범(〈집중호우 사이 / 2025년〉)과 노래 에세이 책 발표, 붓글 전시, 전국 순회 콘서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사에 독보적인 문학적 성취와 사회 문화적 자취를 남긴 예술가입니다.

*이 소개글과 상세 연보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이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워드 문서, PDF File로 만들어져 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태춘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대부분 박은옥과 함께 한 활동 궤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홈페이지의 [〈정태춘 박은옥 프로필〉 페이지](#)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 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2026.8 / 삶의문화)

정태춘 박은옥 활동 연표

(정태춘을 중심으로)

제1기: 음악과의 만남 / 방황과 자아 형성기 (1954 ~ 1978)

- **1954년:** 경기도 평택 도두리 출생 / 5남 3녀의 일곱째(5남) / 농사와 작은 사업들로 출타가 잦았던 아버지와 대가족 환경 / 전기와 자동차도 없던 전근대 풍경의 서해 간척지 허허벌판 마을에서 유년기를 보냄
- <계성국민학교> 재학 중 큰 매형이 구입한 <Guitar>로 셋째 형을 통해 처음 음악을 접함
- **1967년:** <평택중학교> 입학, 현악반이 생기면서 <Violin> 시작 / <평택종합고등학교> 재학 중 지도 교사 전근으로 밴드부에 편입
- 기타를 치며 초기 한국 포크(김민기, 서유석, 양병집 등) 접함. / 음대 입시 낙방
- **1972년:** 졸업 후, 아버지·형들의 지원으로 30만 원짜리 이태리제 고가 바이올린을 구입해 서울로 레슨을 다녔으나, 사춘기 청산의 지연으로 1972년 10월 대학 진학 포기
- 밀양(목욕탕 화부), 울릉도(일주도로 공사장 인부), 제주(농가 일손) 등지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는 1개월 여 썩의 방랑과 노동 / 고향 도두리에서 농사 및 서울 업소 무대 경험 / 노래 만들기 시작
- **1975년:** 전투경찰 입대(인천 해안, 고양 내륙 근무) 중 <시인의 마을>, <촛불>, <서해에서>, <사랑하고 싶소> 등 작사 작곡
- **1978년:** 제대 후 경음악 평론사 최경식의 소개로 서라벌레코드와 계약 / 11월 첫 앨범 **<시인의 마을>** 발표 / 박은옥이 정태춘의 곡으로 데뷔 앨범 **<희상>** 발표

제2기: 성공적 데뷔와 좌절 / 독자적 재기 (1979 ~ 1987)

- **1979년:** 정태춘, MBC 신인가수상 및 TBC 방송가요대상 작사상(<촛불>) 수상
- **1980년:** 정태춘·박은옥 결혼 (팀이나 '듀엣'이 아닌 솔로 음악 영역 유지 / 전체 발표곡 중 듀엣곡은 <봉숭아>, <사랑하는 이에게 3> 등 2~3 곡) / 1981년 딸 정세난을 출생. (이후, 가족 송파 거주 / 2018년 마포로 이전 / 2024년 말 다시 송파로)

- **1980년~1982년:** 2집 앨범 **<사랑과 인생과 영원의 시>** (<탁발승의 새벽 노래> 등 수록), 1982년 3집 **<새벽길 / 우네>** (수록곡 반은 국악 편곡)의 연이은 상업적 실패
- **1983년~1985년:** 지구레코드와 전속 계약 / 1984년 첫 공동 앨범 4집 **<떠나가는 배 / 사랑하는 이에게>** 수록곡 히트로 재기 / 1985년 5집 **<북한강에서 / 봉숭아>** 발표
- **1985년:** 노래 모음집 『시인의 마을』 출간 (성음사)
- **1985년~1987년:** 소극장에서 대중과 직접 만나는 독자적 기획 공연 **<애기 노래 마당>** 전국 순회
- **1987년:** 기획사 **<삶의 문화>** 설립 및 **<정태춘 박은옥 발체곡집 1,2>** (한국음반) 발매 / 레코드사 소속에서 벗어나 앨범 자체 제작 시작

제3기: 현장 결합과 저항 (1987 ~ 1996)

-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화 운동에 결합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및 <민족음악협의회> 창립 멤버로 참여
- **1988년:** <청계피복노조> 주최 행사 참가를 계기로 노동운동과 연대 / 6집 **<무진 새 노래>** 발표
- **1988년~1989년:**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노래극 **<송아지 송아지 누렁 송아지>** 전국 순회 (각 지역 국립대 운동장에서 민주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성 공연).
- **1989년:** 노래 모음집 『누렁송아지』, 『정태춘』 (이영미 편 / 한울출판사) 출간.
- **1990년대 초:** 처음으로 정태춘 작업실 **<수이재>** (서울 송파) 마련.
- **1990년:** 사전심의를 전면 거부한 첫 비합법 앨범 7집 **<아, 대한민국...>** 발표 / 기자회견을 통해 **<가요 검열제 철폐 운동>** 돌입 선언 (카세트 앨범을 진보 운동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
- **1993년:** 두 번째 비합법 앨범 8집 **<92년 장마, 종로에서>** 발표 / <민예총 공동대책위> 구성 / 정부가 음반 수거 지시 및 검찰 기소
- **1994년:** 노래와 평론, 검열철폐운동 자료, 인터뷰 모음집 『정태춘 2』 (이영미 편 / 한울출판사) 출간.

- **1994년~1995년:**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법원의 제청 수락으로 현재 이송 / 노무현·천정배 등 법률 지원 / TV 심야 토론, 국회와 정부 담당자들 면담, <유엔 인권위> 면담 등 전방위 투쟁 1995년 **가요 사전심의제 전면 폐지** 법안 국회 통과.
- **1996년:** <헌법재판소> 사전심의제 위헌 결정 / 두 불법 앨범 합법 출시 / 6월 서울대 노천극장 등에서 이를 기념하는 합동 공연 <자유> 콘서트 개최 /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6회 민족예술상>** 수상 (정태춘·박은옥 공동)

제4기: 침체와 침묵 / 대추리 투쟁, 그리고 변방으로 (1997 ~ 2018)

- **1998년:** 데뷔 20주년 9집 앨범 **<정동진 / 건너간다>** 발표.
- **2002년:** 10집 앨범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 발표 / 베스트 앨범 **<정태춘 박은옥 20년 골든 앨범(1978-1998)>** 발표.
- 노래 만들기 중단
- **2003년~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대추리(도두리)> 투쟁**
 - 2003년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들사람들> 결성 및 고향 주민들과 연대
 - 2004년 시집 『노독일처』 (실천문학사) 출간.
 - 2005년 정박 광화문 거리 콘서트 <평화, 그 먼 길 간다>와 종각 앞에서 진보예술인들과 함께 수 개월간의 반전 평화 캠페인 공연 진행
 - 2006년 대추리 접수 행정 대집행 저지 과정에서 현장 연행 및 유죄 판결, 대추리 마을 철거로 투쟁 종료
- **2006년:** <가족 작업> 시작
- 사진, 가족 공예, 붓글씨("붓글") 등 취미 생활과 비음악적 예술 매체에 관심을 돌리며 초청 공연 위주 활동
- **2007년:** **<제4회 한국대중음악상> 공로상** 수상
-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안장식 문화제 (봉하) <잘가오, 그대> 대본, 기획·연출
- **2012년:** 11집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 발표 (박은옥을 위한 일시적 작곡 작업)와 기념 콘서트

- **2012년:** 정태춘 사진전 <비상구> 개최 (서울 강남, 구하 갤러리) / 본격적인 <붓글> 작업
- **2013년:** 작업실을 원주 부론 강변으로 이전 (<노하루>)
- **2015년:** 딸 정세난솔의 자작곡 앨범 <다 큰 여자> 딸과 공동 편곡 프로듀싱, 발매
- **2018년:** 주거지를 마포로 이전함에 따라 부론 작업실을 마포 거주 건물 안으로 이전 (<연남재>)

제5기: 복귀, 대중적 재조명과 재창작 / 노래의 문학적 성취 (2019 ~)

- **2019년:** 데뷔 40주년 프로젝트 “정태춘 박은옥 40 프로젝트 <날자, 오리배>” 진행
 - **음악/공연:** 40주년 기념 앨범 <사람들 2019’> 발표, 전국 22개 지역 콘서트 진행 / KBS TV <열린음악회> 등 대형 특집 단독 콘서트 진행
 - **출판:** 시집 『노독일처』 (북간), 시집 『슬픈 런치』, 노래 에세이 『바다로 가는 시내 버스』 (이상 천년의시작), 40주년 기념 트리뷰트 출판 평론집 『바다로 가는 시내 버스』 출간
 - **전시:** 40주년 기념 전 <다시, 건너간다> (세종미술관) 개최 (진보 미술가 40여 명의 헌정 전시 및 정태춘 붓글 별도 첫 전시) / <학술대회> 개최
- **2021년:** 다큐멘터리 영화 <아치의 노래, 정태춘> (고영재 감독) 개봉 및 상영
- **2022년:** 정태춘 다시 노래 만들기 시작
- **2024년:** 가족들의 주거지 송파로 복귀하며 인근 하남시에 새 작업실 <수이재> 마련
- **2025년:** 12집 정규 앨범 <집중호우 사이> 발표와 함께 새 프로젝트 "노래여, 벽을 깨라" 진행
 - **Concert:** <전국 순회 문학 콘서트 "나의 시, 나의 노래">
 - **출판 및 전시:** 노래 에세이 『집중호우 사이』, 붓글 모음집 『노래』 발간, 붓글전 “노래여, 노래여” (인사동).

그 외,

*박은옥과 함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2년간 고정 출연

*서울과 타 도시 <국악관현악단>들과의 협연

*해외 초청 공연 / 미국 (뉴욕, 로스앤젤리스, 샌프란시스코) / 일본 (도쿄, 교토, 오사카, 나가노, 삿포로) / 호주 (멜번, 시드니)

*그리스 가수 <마리아 파란투리>와의 협연 공연 (2019년 의정부)